

1990년 6월 1일 제118회 참의원 내각위원회

○ 일시: 1990년 6월 1일(금) 오전 10시 1분 개회

○ 발언자:

- 요시오카 요시노리(吉岡吉典) 의원(정치가, 역사연구자, 일본공산당 소속 참의원 의원, 참의원 노동사회정책위원장, 참의원 징벌위원장,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예 임원)

○ URL: <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1814889X00519900601&spkNum=237¤t=16>

○ 해제(개요 및 특징)

요시오카 의원이 전 운수대신이던 고(故) 아라후네 세이주로(荒船清十郎)가 1965년 11월 20일 개최된 어느 강연에서 전쟁 중 조선의 위안부 14만 2천 명이 사망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, 일한 교류의 교섭 과정에서 현재 개략적인 수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질타함.

○ 주요 내용 번역

- ▷ 요시오카 “관방장관이 출석한 위원회이므로,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.

우선,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 강제연행 문제의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조사한 적이 있는지가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명부야 어떻든 강제연행한 조선인의 대략적인 수라도 알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. 세 번째 문제는 이 조사라는 것이 명단 작성뿐인지, 아니면 조선인을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극악무도한 수법과 끌려온 재일조선인이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도 조사에 포함할 것인가입니다. 이상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론만이라도 좋으니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.”

(중략)

- ▷ 요시오카 “(전략) 조금 전에 일한교섭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. 이때에는 숫자를 거론하며 논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은 일한 교섭이 한창일 때, 전(元) 운수대신으로 지금은 고인이 된 아라후네 세이주로(荒船清十郎) 씨가 어느 강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. 1965년 11월 20일 강연 가운데 나온 일부입니다만, 전쟁 중에 징용공(徵用工)으로 데려와 성적이 괜찮아서 군대로 보내 사용했는데, 이들 가운데 57만 6천 명이 죽었고, 또 얼마 전에 예산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는 조선의 위안부도 14만 2천 명이나 죽

었다고 강연하셨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숫자를 강연에서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일한 교섭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며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도 이를 벌써 잊어버리고 대략적인 숫자도 모른다고 하는 태도야말로 조선에서 일본이 저질러 온 짓에 대해 얼마나 반성이 없는 태도를 취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.”